

#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있어서 의무기록사의 역할

— 의무기록 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축하하며 —

유 원 하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 I. 서 론

주지하시다시피 1884년 Dr. Allen에 의하여 서양의 학이 이땅에 도입된 이후 100여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 수준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66.7세, 여자 73.1세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1960년대 이후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 컸다고 평가될 수 있겠으나 일제 통치, 6·25동란, 그리고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1970년대 중반까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비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준의 국민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마땅히 원로 및 현재 보건의료계 종사인력의 각고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근년에는 국민소득 5,000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 6공화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고 있

습니다. 이에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완전도입 시행되었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제고,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와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점진적인 제도발전으로 향후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정부는 끊임없는 수정보완 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보건의료계 종사인력이 대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 크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의무기록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다같이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 II. 보건의료정책과 의무기록사의 업무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 정책과 의무기록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1. 보건의료정책과 의무기록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많은 하부구조와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창조적인 사고로 일반적인 원칙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리고 의무기록이 환자의 질병과 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와 보건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여준 내용이 기록된 문서라고 정의된다면, 보건의료정책과 의무기록의 관계는 <정보>라는 공유의 개념이 정확하고 완전할 때만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부연한다면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형성을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고 위해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내용은 연령, 성별, 기호, 증상 등 환자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진단, 수술, 투약, 처치 및 결과 추구관리에 관한 내용이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거시적으로는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통계를 제공하여 의학연구 발전 및 국가보건행정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환자개개인에게 일관성있는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의료제공자에게는 제공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등 그 기여 분야는 막대하다고 하였습니다.

## 2. 의무기록사의 업무

전술한 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무기록은 인류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의학의 발전과 함께,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제 학문이 전문화함에 따라 의무기록 분야 또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료제도 측면에서의 의무기록 발전의 전환점은 1982년 4월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법에 의무기록사 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1983년에는 전국의 121개 종합병원이 의무기록사 수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85년부터는 매년 국가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의무기록사 면허자는 1,8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 2

조 제 7항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보건관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의무기록관련 학점을 이수한 졸업생에게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일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으로서는 의무기록이 학문으로서의 연구조사사업 부족, 제한된 전문인력 등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본 위크숍을 통하여 많은 토의와 건의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 III. 기대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

본인은 전술한 바의 의무기록사의 업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의무기록의 발전과 본 위크숍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관리 측면에서의 의무기록사의 역할

제 6 공화국의 주요정책중 보건의료분야의 당면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전국민의료보장제도, 의료전달체계 및 의약분업 등의 차질없는 도입 및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제도는 주지하시다시피 이미 금년에 모두 정확히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수립 당시의 불완전한 여건에 의하여 완벽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이 끊임없는 문제의 파악과 대안의 수정보안, 평가 및 환류의 단계로 순환하는 것이라면 초기부터의 완벽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정책수립자의 당연한 윤리이자 의무이지만 정책수립 초기에는 정책의 시스템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됨으로 완전하지 못한 정책수립여건에서는 (이론상 완벽한 여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질적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게 되는 것이 본인의 경험입니다.

한 예로 의료전달체계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3차의료기관을 이용시는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토록 제도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송이 필요하였는지의 평가는 의무기록의 검증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충분한 내용을 포함한 진료의견서 서식의 통일, 병원 의무기록 서식의 개선, 의무기록관리 방법의 전산화 등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필요로 하겠으나 일차적으로 이를 분석 검토할 인력은 의무기록사들의 소임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들에 있어서는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같이 한 예로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제도화와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될 때만이 국민이 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신하며 이에대한 진지한 토의도 오늘 워크숍에서 포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2. 보건의료정보관리기법의 발전에 따른 의무기록사의 역할

최근 관리할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도 정보관리기법이 급속도로 확산,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에도 업무의 전산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산화내용은 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 전산화의 우선 순위는 의무기록에서부터 도입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전산화가 가능하여 질 것입니다. 의무기록의 전산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많은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의무기록사 자체의 전산교육 훈련을 통한 자질향상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3. 의학조사연구 사업에서의 의무기록사의 역할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은 보건의료관계 학문의 발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학문의 발전도 조사연구사업에 기초함 또한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한 예로 의학의 발전은 의무기록의 조사연구에서부터 비롯되며 흔히 부검이 많은 의료기관이 훌륭한 의료기관의 척도에 드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의학조사연구 사업에 의무기록을 책임지

는 의무기록사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4. 의무기록사의 교육훈련과 보수교육

학문의 발전에 따른 전문화, 세분화는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보건의료 분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분야 또한 전문화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사의 대종을 차지하는 병원근무 의무기록사의 경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의학용어, 기초임상학 질병분류, 약학, 외국어, 통계학, 병원관리학 및 전산 등에 관한 지식은 최소한의 필수요건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일된 교육훈련 과정이 아직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현행의 의무기록사가 되기위한 교육과정은 간략히 전술한 바와 같이 수습자에 대하여 국가 면허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는 의무기록과로 독립된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하여 본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합리적인 교과과정의 설정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무기록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도 자세한 토론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 IV. 결 론

우리나라 국민건강 수준은 경제적인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보건의료관계 학문의 발전과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우기 제6 공화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정책기초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추진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둔 전국민의 건강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획기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전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도입, 그리고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의약 서비스의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약분업제도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책을 입안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계속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무기록 발전을 위한 워크숍」도 이러한 상

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이 의무기록에 대하여 평소 느끼던 몇가지 논점을 두서없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공감을 하여 주신다면 오늘과 내일의 토론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많은 문제점의 도출과 진진한 논의를 거쳐 훌륭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